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정치인과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15일은 21대 총선일이다. 앞으로 9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물러오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감시의 눈초리를 기울여 말아야 한다. 물론 정상 시에도 그렇고. 여하튼 지금부터는 더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은 국민들을 그만큼 힘들게 한다. 이미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뼈저리게 느꼈잖은가. 그런데도 그 정당들은 오늘도 활개치고 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온갖 수사를 다 동원해가면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촛불정권을 공격까지 하면서,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엄청난 단죄를 받아도 부족할 폐족들이 말이다.

여기에는 보수언론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부류들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남작 없더라 살면서 용비어천가만 부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민주부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화의 과실은 제일 먼저 그들의 차지가 돼버렸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처럼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스렸다면 고개를 뺏아내고 다닐 수 있을까. 남작 없더라서 땅비답이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가관일 것이다.

앞서 말한 간고한 세력들이, 속이 들여다보이는 하얀 분칠을 하고서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속절없이 알게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끝없는 정치소음에 시달리면서, 정치인, 국어사전에 '나라를 다스

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 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

사전 뜻대로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인들을, 그만큼 자신들의 틀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속인 적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정작하게 정치를 한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 애당초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 수 있다.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쓰고 아프면 접근하기가 싫다. 때문에 아이들은 기를 쓰고 예방주사 등을 맞지 않으려 한다. 아프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 데도.

그렇다. 정치인들은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는 심리를 잘 안다. 그래서 달콤한 말부터 하는지도 모른다. 알맹이가 어쨌든 겉포장만은 화려하게. 그래야 대중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휘황찬란한 받거리에서 8등신 미인이 눈웃음 날리며 달콤한 말로 속삭일 때, 과연 그 유혹을 몇 명이나 떨쳐낼 수 있을까.

총신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에 혹하지 말고 경제 살리겠다던 이 명박 정권,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 모두 다 뱀의 혀로 현란한 수사만 남겨둔 채 몰락해 버렸잖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넬슨 만델라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노력하는 한 노인일 뿐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는 말을 했다.

삶이 버거운 작금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말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 능력 밖의 화려한 말만 늘어놓는 자 등은 절대로 뽑지 말자.

미국이나 유럽처럼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결코 용서하지 말자. 그 래야 정치인 본인도, 국민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社 說

전남도 의미있는 과거사 관심

전남도가 5·18민주화운동·여순사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와 관련한 피해 보상 지원업무 전담조직인 '5·18민주화운동 및 과거사 지원센터'를 신설한다니 기대가 크다.

팀장급을 포함해 3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내년 40주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도내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공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18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종합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념 공간 조성·사적지 지정 등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사업에 들어가고 유공자 지원과 40주년 범 도민 기념행사도 마련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주화 과정에 이르는 과거사 정리·지원사업도 맡는

다.

도내에 거주하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2명에 대한 생활 지원과 청소년 대상 근로정신대 피해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합동위령제 개최·유적지 정비사업·사건 바로 알리기 교육 등 한국전쟁 전·후의 과거사 정리와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됐던 5·18 사적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계승하는 사업도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겠다니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다.

과거를 도외시한 채 미래로 나아가 수는 없다.

전남도가 이번엔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피해보상은 물론 지원 등을 도모하는 것은 도가 미래로 나아가는 시급성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화재 예방 위해 사전점검 해야

흔히 화재는 대형공사나 주택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 화재예방에 대한 예방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의 결여로 차량 화재 사망 사고의 건수는 매년 큰 폭의 변동은 없다. 조금의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예방 대처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첫 번째 평소엔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점화장치, 배터리 등 차량에 대한 일상·정기 점검을 생활화한다.

두 번째 LPG 차량의 경우 가스 누출 점검을 수시로 하고 각종 밸브의 종류와 기능을 익혀두도록 한다.

세 번째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실내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

네 번째 모든 전기장치는 정격용량의 퓨즈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연료장치나 전기장치에

대한 불법 개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안개등, 원격시동장치, 경보장치 등의 보조 장치를 임의로 장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차량의 수리 정비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여덟 번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가능한 주차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차량 실내 또는 작업·주유 중인 차량 주변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한다.

열 번째 차량에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약의 화재에 대비한다.

따라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위에서 언급했던 10가지를 습관화 해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품이므로 반드시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자.

백중희 / 무안소방서 119안전센터장

벌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 숙지

일반적으로 벌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벌을 공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활동만으로도 자극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벌은 말벌 그룹이 흔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였을 때 국소적인 반응으로 쏘인 부위 주변으로 붓게 된다. 이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며, 대부분 이런 증상이 수일 지속되고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러 차례 벌에 쏘이게 되면 전신 독성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구역감, 구토, 실사, 어지러움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혈압이 하강하고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복통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 의식저하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벌에 쏘일 경우 대처법으로는 우선

환자를 추가적인 벌에 쏘임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이후 발톱을 제거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내면 된다. 단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발톱을 핀셋으로 집어 뽑지 않도록 한다. 핀셋으로 집을 경우 독을 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톱 끝부분에 남아 있는 벌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 뽑지 않는 게 좋다.

발톱을 제거한 후에는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물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세척한다.

이후에 얼음찜질을 시행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부종이 심할 때는 물린 부위를 높게 한 후 안정시킨다. 알러지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혈압강하 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재욱 /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2인)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3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